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5)

락랑문화시기의

목걸이와 가락지, 옷저울...

락랑문화시기의 마구 및 수레부속품들이 전시된 구획을 돌아본 우리는 이어 몸치레기리와 화장용구류구획을 돌아 보았다.
남경희책임강사가 우리에게 락랑문화시기의 몸치레기리와 화장용구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락랑문화시기의 몸치레기리에는 락고리, 팔찌, 가락지, 머리핀, 비녀 등이, 화장용구류에는 옷저울과 거울받치개, 빗, 팔라개 등이 있었다고 한다.
남경희책임강사는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몸차림을 보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하던 일종의 장식품인 동시에 하나

의 정교한 공예품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락고리는 판로들이 이용하던 남자의 몸치레기리인데 신분등급에 따라 재료와 무늬장식을 달리하게 되어있었다고 하면서 그 실례로 석암리 9호무덤에서 나온 순금으로 만든 락고리 락고리와 정백동 37호무덤에서 나온 은으로 만든 락고리를 들었다.
또한 녀성들이 머리단장을 하는데 쓰이던 은이나 대모갑, 청동으로 만든 비녀나 대나무로 만든 팔라개만 보아도 당시 부유한 녀성들이 머리를 장식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락랑문화시기 목걸이의 구

슬은 옥과 수정, 호박, 유리, 뼈, 활석 등의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 색깔도 여러가지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몸치레를 하고 화장을 하는데 쓰이던 유물들과 함께 몸단장을 한 두 남녀의 랍상도 전시되어있었는데 녀성은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가락지를 구색에 맞게 착용하고있어 아름다움을 뚜렷이 나타내고있었다. 전시

된 몸치레기리와 화장용구류들을 통하여 우리는 락랑문화창조자들의 뛰어난 창조적 지혜와 재능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장숙영



지방원료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생산을 확대

▷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

지방공업의 본보기적실제로 개건현대화된 공화국의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제품생산을 늘여나가고 있다.
군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1,000여정보의 원료기지와 수유나무림 등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의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할 수 있는 원료보장장태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공업공장들의 종업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계획수행률을 끌어올리는데서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 제품의 질제고를 중시하고기로 틀어쥐고 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10월계획을 초과한수한 식료공장에서 그 기세로

매일 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고 있다.
작업반들에서는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인민들이 즐겨 찾는 맛좋은 기초식품과 당과류, 산과일유로 등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일용품공장에서도 생형기, 압출기 등의 가동률을 높여 비누와 수지제품, 가구제품, 초물제품을 질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종이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역시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각이한 용도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옷공장 종업원들은 새형태의 학생교복생산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지방공업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며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해 종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다.
본사기자

사람의 호흡기계통은 자체의 완벽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호흡기계통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코는 자체조절능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코털과 점액은 기관지로 들어오는 공기속의 세균과 병균을 비롯한 미생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코가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호흡기계통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련관된다.
겨울철 호흡기계통질환을 예방하자면 방안습도를 약간 높이는것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방안의 습도가 40%이하이면 호흡기계통의 항균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먼지가 세균을 들이마시던 인차 호흡기계통질환에 걸리게 된다.
더운 음료를 자주 마셔도 몸이 불편한감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더운 음료의 향과 수증기가 타액을 비롯한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해지는것을 방지하여 병균침투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홍차, 목차, 레몬수 등을 마시는것이 좋다. 음료가 뜨거울 때 잔에서 주걱 하나 떨어진 위치에 코를 대고 수증기를 들이마시다가 음료가 식은 다음에 마시면 좋다. 이렇게 하면 병균과 세균을 막을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목차에 들어있는 성분인 류행성감기비루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고 코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본사기자



명래매운탕

음식감으로 명래 2kg일 때 두부 300g, 소금 5g, 고추장 50g, 기름 10g, 파 30g, 마늘 20g, 생강 5g, 풋고추 20g, 고추가루 5g를 준비한다.
명래는 길이 3~4cm정도로 토막내어 소금을 뿌려놓는다.
두부는 나박모양으로 썰고 풋고추와 파의 일부는 송송 썰어 놓는다.
명래대 가리로는 국물을 만들고 다진 애와 고지, 고추가루, 잘게 썬 풋고추, 다진 파

와 마늘, 생강, 기름으로는 양념장을 만든다.
국물이 끓을 때 고추장을 풀어둔 다음 명래토막을 넣고 거의 익을 때 썬 두부와 풋고추, 나머지 파를 두고 한소끔 끓여 탕그릇에 담고 양념장을 쳐서 낸다.
본사기자



성적이 낮은 리유

친척이 나들이를 왔다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고 물었다.
《다른 과목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력사성적이 좀 락후해요.》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력사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친척이 다시 물었다.
《그런것같지도 않아요. 내가 일전에 우리 예의 력사시험지를 보았는데 문제들이 모두 그에게 태어나기 전에 있는 일들이더군요.》
그러니 그에게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하는 말이였다.

연암동과 박지원 (6)

글 리성우, 그림 채대성

종간은 말에서 내려 너푼절을 하고서 《토환에 계시는 아버님을 잘 모셔오라는 어머니의 분부를 받고 뒤따라왔습니다. 연암동에 들리니 벌써 떠나셨다 하기에 급히 달려왔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는게냐?》
연암은 부인과 아들의 녀름을 곁잡고 여기며 빙그레 웃었다.
《아버님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너도 개성으로 함께 가자. 개성은 내 한생에서 잊지 못할 고장이다. 나를 위해주던 친지들도 많거니와 10여년을 내 그곳에 드나들며 글을 읽었다.》
연암은 감회깊은 눈길로 사방을 두루 살펴보더니 《없어진것에 쉬어간다고 우리 여기서 잠깐 쉬어가지.》 하며 말에서 내려 길옆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들 종간이도 옆에 와앉고 견마잡이하인도 말을 풀말에 매놓고나서 필척이 앉았다.
연암은 주변을 두루 살펴보더니 《이곳은 낯익은 곳이구나.》 하며 감격해하였다.
큰길이나 소나무 울창한 고개마루를 타고넘었는데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개성 동대문이 곧바로 바라보이고 서남쪽으로 같이 무성한 넓은 벌이 펼쳐져있었다.
연암동에 와있을 때 이 길을 얼마나 다녔던가.
어느해였던지 이 고개에서 개성류수 유사경의 행차와

맞다들어 쇠득이라는 길가던 젊은이와 함께 길가에 었던 일도 생각났다.
쇠득이를 그후에 금학골 양씨로인네 집에서 두세번 만났었다. 쇠득이가 심부름이차 들어주었다면서 우정 찾아왔던것이다.
그래서 한양집으로 몇번 요긴한 심부름을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양복 200리길의 수고를 연암은 잊을수가 없었다.
마음씨 순박하고 저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와주려고 애쓰던 젊은이였다. 연암은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 나라 백성들을 생각할 때면 쇠득이의 인정넘치는 푸수한 얼굴이 떠올랐고 쇠득이를 생각하면 이 나라 백성의 모습이 보였다.
안의현감으로 나가있을 때 억울하게 죄를 입은 한 젊은이가 라졸들에게 잡혀 졸경을 치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연암은 문득 쇠득이의 모습이 눈앞에 열려져 고을아전들의 못된짓을 끝끝내 밝혀내고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쇠득이를 이 고개길에서 만났것은 우연이었지만 량반사대부들의 고루한 세계에 등을 돌리고 실사구시의 새 사조를 지향하여 풍파사나운 길에 나선 연암이 곤로하는 참다운 생활의 창조자들인 백성들과 만나게 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었다.
연암자신이 알았건몰랐건 그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고있는 쇠득이란 청년의 존재의미는 이렇게 컸던것이다.
연암은 감회가 새로운듯 절절 웃고나서 아들에게 말하였다.
《내 이 길에서 쇠득이라는 젊은이를 처음 만났던것이 벌써 20여년전의 일이지만 잊혀지지않는구나. 개성 금학골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대 한양의 너의 어머니한테도 두어번 금한 일로 다녀온적이 있었다. 내가 금학골 양씨네 별장에서 몇번 보기도 했지만 그 젊은이가 꿈에 보일줄이야... 한번은 꿈에 보이는데 처음 보던 그때 모습 그대로였어.
총각머리태를 둘러넣은 머리를 무명수건으로 질근 동이었는데 《연암선생님, 이리 와서 없드시오이다.》 이런단 말이다.
《없드리긴... 또 량반행차냐?》
《그보다 더한것이 지나가오이다.》
《더한것이아니? 임금의 행차시냐?》
《그보다 더한것이오이다.》
《그보다 더한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저것 보시오이다.》
쇠득이가 가리키는쪽을 보니 하늘공중으로 시꺼먼 구름이 라케치며 휘휘 날려가는데 그속에 온갖 잠동사나들이 다 섞여있더라 말이다.
사색당쟁이 뿌리째 뽑혀나가는데 동인 서인, 남인, 로론, 소론하는것들이 다 홍수에 밀려가는 나무둥겉처럼

이러저리 굴며 밀려가고 서열자손(침차식)에 대한 차별법을 자자구기 막아넣은 《서류금고법》이란것도 갈기갈기 찢겨서 밀려가고 400여년동안이나 인제등용의 길을 막아오던 서북지방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흰 남마조각처럼 밀려가고 백성의 피를 말리우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3정(년정, 군정, 환정)까지도 쓰레기가 되어 밀려가더라 말이다.
《이애, 쇠득아, 이게 어찌된 일이지?》
공중에서도 너무 이상스러워 물었더니
《이게 바로 세월행차라는 것이오이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다.
《세월행차라니?》
《세월이 구름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행차이운데 저것 보시오이다. 새 세월행차가 또 뒤따르오이다.》
쇠득이가 가리키는쪽을 보니 이번에는 흰구름에 휘감겨서 온갖 신식문물이 등등 떠들어오구나. 자명종, 지구의, 서양총, 천리경... 내 연정에 갔을 때도 보지 못하였던 신식문물이 수두룩

하더구나.
세월의 수레를 타고 새시대가 오느것을 느끼자 내 몸에서는 이상한 힘이 솟고 용기가 솟더라 말이다.
《연암선생님, 어서 가시오이다.》 하며 쇠득이가 내 팔소매를 당기더니
《오냐, 어서 가자. 우리라고 남에게 뒤질소냐. 어서 가자.》
취한 사람처럼 쇠득이와 함께 걸음을 옮기는데 앞에서는 태양같은 광명이 비쳐왔다. 너무도 눈부셔서 눈을 번쩍 뜨고보니 꿈이더라 말이다.
넋을 잃고 꿈이야기를 들

르듯이 량반사대부들이 모두 모른다니 이제 통란할 일이 아니냐.
연암은 고개마루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산천경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왜 이 고개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쇠득이를 처음 만난 곳 이어서 감회롭고 개성으로 자주 드나들던 낯익은 길 이어서 마음속에 정다운것도 사실이지만 내 꿈에서조차 가자고 하던 그 길을 죽어서도 꼭 가고싶고 내가 못가면 너희들이라도 꼭 가야 할기 때문이다. 산천이 수려하고 남향이요 안천이 낯익은 이곳에 묻힌다면 내 꿈에서 가자고 하던 그 길을 죽어서라도 꼭 가고말것같구나.》
종간이가 낯빛이 해쓱해지면서 편잔하듯이 대꾸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갈길이야 생전에 가서야지요.》
《허허...》 연암이 시름없이 절절 웃었다.
《이러하면 그렇단 말이다. 세월이 한차례 지나야야 내 평생에 가자고 하던 그 길을 마치 가낼것같구나. 자, 그만 가보자.》
연암은 옷자락을 털며 일었다.
아들과 함께 말에 올라 개성 동대문을 바라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몇해후에 연암 박지원은 예순여덟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 박종간이가 이날에 있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있는 까닭으로 해서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연암 박지원의 무덤은 지금 개성 동대문밖 황토고개 남쪽기슭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고있다.
(끝)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들.
4.25 체육단 력기감독 리철남

감독으로 내세워준 조국훈체육인 리철남은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었다.
희망의 나라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따듯이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폭속에서 11살 때부터 력기초기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체육단선수로 성장하였으며 그후 감독으로 되었다.
감독으로 내세워준 조국훈체육인 리철남은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었다.
희망의 나라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따듯이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폭속에서 11살 때부터 력기초기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체육단선수로 성장하였으며 그후 감독으로 되었다.
감독으로 내세워준 조국훈체육인 리철남은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었다.
희망의 나라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따듯이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폭속에서 11살 때부터 력기초기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체육단선수로 성장하였으며 그후 감독으로 되었다.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더욱 분발하군 하였다.
그의 이런 노력은 신철법선수의 뒤를 이어 여러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안이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나날에 그가 맡은 신철법선수는 국제경기들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리철남감독은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보다 높은 목표를 내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뚝이 새김금동인왕상

뚝이 새김금동인왕상은 고려시대의 금속공예품으로서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나왔다.
이 공예품의 크기는 길이 6.3cm, 너비 4.5cm이다.
금동판을 뚝수법으로 새겨 인왕상을 형성한것인데 불교와 관련되어있는 공예품이다.
인왕상이라는것은 힘을 뽐내는 힘장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동으로 된 이 공예품은 4각형의 금동판에 두구와 갑옷을 입은 두명의 인왕상이 있고 내려드리는 활, 창, 검 그리고 락꽃잎들이 서로 련결되어있다.
원쪽의 인왕상은 칼을 쥔고 서있고 오른쪽의 인왕상은 창을 쥐고 서있는 모습으로 형성되어있다.

두구를 쓴 인왕상의 머리 주위로 원형고리로 된 두광을 뚝이 새김하였고 그우에

